

보도해명자료 (19. 3. 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LNG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석탄발전의 1/3 수준

(서울경제 3.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LNG 발전의 초미세먼지(PM 2.5)는 석탄발전의 1/8배, 직접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/3 수준에 불과
- ◇ 원전발전량 비중 감축만큼 신재생발전량 비중이 증가하고, 석탄발전량 비중이 감소하면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감축될 전망
- ◇ 3월 5일 서울경제, <‘친환경’이라더니 LNG 발전의 배신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- LNG 발전은 친환경 발전이 아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주범
-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LNG 발전을 확대하나, 이는 원전을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다 생긴 역설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LNG 발전은 황산화물 및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, 석탄발전에 비해 초미세먼지(PM 2.5)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음
 - * 발전소 배출 대기오염물질 : 황산화물(SOx), 질소산화물(NOx), 총먼지(TSP)
- LNG 발전의 초미세먼지(PM 2.5) 배출은 석탄발전의 1/8배,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(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먼지)은 석탄발전의 1/3 이하 수준

<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비교('17년, kg/MWh)>

	SOx	NOx	총먼지	총계	초미세먼지
석탄 발전	0.258	0.291	0.013	0.561	0.120
LNG 발전	-	0.171	-	0.171	0.015

* 초미세먼지는 직접배출 대기오염물질에 환경부 전환계수 적용

- 석탄발전의 연간 초미세먼지(PM 2.5) 배출량은 2.7만톤으로 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의 90% 가량 차지하나, LNG발전은 1,690톤 불과('17년)
- 대기오염물질 총량으로 비교시에도 석탄발전은 12.5만톤이며 LNG 발전은 석탄발전의 1/6 수준인 2.1만톤에 불과

- 8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따르면 '30년까지 전력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'17년 대비 약 62% 감축될 전망

- 이는 환경급전, 석탄발전의 LNG 연료전환 및 환경설비 보강 등을 통해 석탄발전량과 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기 때문
- 또한, 원전발전량 비중이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영향도 큼

<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 전망>

	원전	석탄	LNG	신재생	기타	미세먼지
'17년 (실적)	26.8%	43.1%	22.2%	5.6%	2.3%	3.4만톤
'30년 (8차 계획)	23.9%	36.1%	18.8%	20.0%	1.2%	1.3만톤 (62%↓)

- 기사에서 언급된 인천 서구와 강북구의 미세먼지 비교는 단순히 LNG 발전 밀집도만 원인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·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 장(044-203-5250)
장지혜 사무관(044-203-5154)